

엔비디아 ‘역대급 실적’… 반도체 강세 속 금리 불확실성 여전

AI發 상승 모멘텀 재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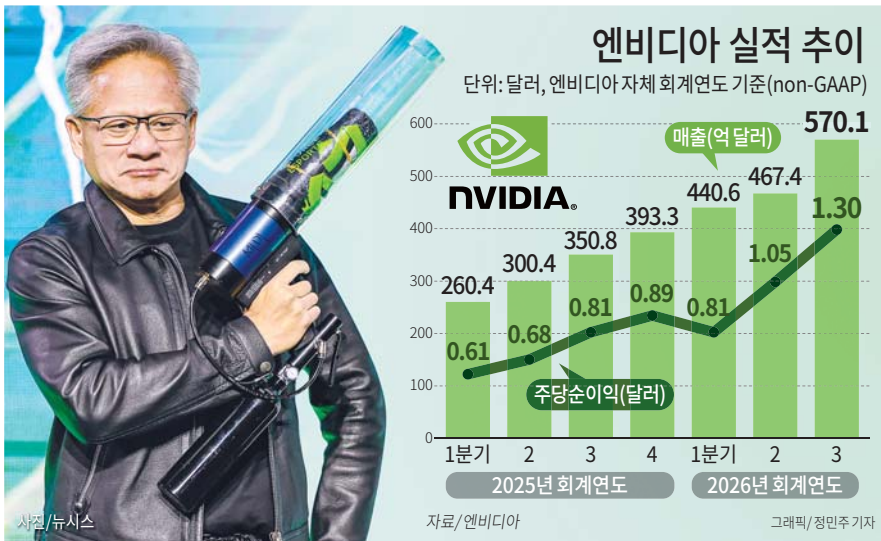
필라델피아 지수도 강한 흐름
D램·낸드 가격 급등세 이어져

외국인 순매도에 환율 부담 가중
FOMC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 확대

엔비디아가 3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알린 20일 한국 증시가 문을 열자, 투자자들의 주식 사자 행렬이 밀려들었다. 코스피는 1.92% 오른 4004.85에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회계연도 3분기(8~10월) 매출이 570억1000만 달러(약 83조원)로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전망치(549억2000만 달러)를 20억 달러 이상 웃돈 수치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며 최근 제기된 ‘AI 거품론’을 정면 반박했다. 이런 소식이 반영되면서 반도체 주가도 날아 올랐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4.25% 뛴 10만600원에, SK하이닉스 주가는 1.60% 오른 57만1000원에 마감했다.

◆AI발 반도체 랠리

1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10%뛴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



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38%, 0.59%상승했다. 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필리 지수)는 장중 한때 3.07% 급등했다. AI 버블이 터질 것이라는 걱정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인식이 퍼진 영향이다. 실제 이날 엔비디아는 우려를 딛고 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

한국증시에도 이운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 대만 지취안 등 주요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말 1963조원이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날 3305조원으로 1329조원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282조원)와 SK하이닉스(290조원)의

증가분이 572조원에 달한다. .

이유 있는 쏠림이다. PC를 조립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메모리 칩 가격은 무섭게 치솟고 있다. IT 기기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소비자용 D램인 삼성전자 DDR5-5600 16기가바이트(GB) 제품 가격은 지난 9월 6만9246원 수준에서 18일 현재 20만8090원으로 급등했다. 두 달 사이 3배로 오른 것이다.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오름세다. SK하이닉스의 1테라바이트(TB) SSD 제품 가격은 같은 기간 15만668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24% 올랐다.

실적 기대감도 커졌다. KB증권은 2026년도 코스피 영업이익을 올해(약

264조원)보다 107조원 늘어난 401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합산 영업이익은 156조원으로 예상했다.

AI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끄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초호황기)’ 전망에 증권사들은 관련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AI 특수와 D램 시장 수요 회복을 이유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4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AI발 반도체 수요 증가로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이 발생해, 이 분야 강자인 삼성전자가 수퍼 사이클의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가 73만원을 제시했다.

이은택KB증권 연구원은 “단기 조정과 붕괴를 구분하는 도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기·이익 사이클인데, 최소한 지 금까진 경기 사이클이 꺾이기 전에 버블이 먼저 붕괴한 적은 없다”며 “아직은 확장 국면으로 파악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역사적으로 증시 강세장에서 단기 조정은 평년보다 2배나 더 많이 나타나며, 일간 하락 폭도 3~4%로 평년보다 훨씬 더 급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환율 상승이 주가 발목 잡을 수도

코스피 랠리가 다시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가파른 원화 약세를 걱정한다. 외

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을 걱정해 발을 뻗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467.9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쳤다. 이달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 규모가 11조2000억원에 달하며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환율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팬데믹 이후 대미 투자 쏠림 현상이 강화된 상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2년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3년째 이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급증 추세다.

.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의 격차가 원화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높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통화정책도 변수다.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9, 10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동결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허정운·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AI가 밀어올렸다… 삼성·SK하이닉스, ‘메모리 슈퍼사이클’ 시동

엔비디아 호실적에 HBM 확대세
SK하이닉스, 美매출 27% 수혜
삼성, HBM4 투자 재개 본격화

엔비디아가 올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에 ‘AI 버블’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각종 메모리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뚜렷해지며 AI메모리칩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반영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올 3분기 매출이 570억1000만달러(약 83조 4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전망치인 549억2000만달러를 웃도는 수치로 전년 동기 대비 62% 급증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시장에서 제기됐던 AI 거품 논란도 한층 진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 매출은 512억달러로 전체 매출의 93%를 차지하

며 AI서버용 GPU ‘블랙웰’ 시리즈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는 단순히 GPU 판매 확대를 넘어 HBM과 고성능 D램, AI 서버용 파운드리 생산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양사는 메모리 칩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CAPA)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현재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제품 원가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수준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이 가운데 HBM3E 물량을 대부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K하이닉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법

인 소재지 기준 미국에서 발생한 매출은 17조 345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가 고객사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핵심 파트너사인 엔비디아향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22년부터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차세대 제품은 HBM3E까지 주요 공급업체 중 가장 먼저 공급해왔다. SK그룹은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에 최대 600조원을 투입하며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 또한 엔비디아향 HBM4 초

기 샘플 공급 등 수주 확대가 기대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회사는 HBM 생산 비중을 키우기 위해 한동안 중단했던 평택 캠퍼스 2단지 5라인 건설 공사를 재개했다. 해당 라인에는 60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며 10나노급 6세대(1c) D램과 HBM4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최근 제기됐던 AI 거품론을 상당 부분 진정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 시기와도 맞물리면서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신뢰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원가·관세·수요 압박… 강관, 북미·풍력으로 출구 찾는다

열연 인상에 원가 압박 지속 심화
반덤핑 여파에 실적 악화 추세 확대

강관업계가 열연강관 가격 인상과 중국산 반덤핑 관세, 건설 경기 침체 등 3중고가 겹치면서 원가와 수요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주요 강관사들은 북미 현지 생산 확대와 해상풍력·에너지용 고부가 강관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강관업계는 수년째 지속중인 건설경기 침체에 더해 최근에는 중국산 반덤핑 관세에 따른 강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포스코가 11월 계약분부터 일부 강관사에 공급하는 탄소강 구조관·배

관재용 실수요 열연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하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강관 제품은 열연 비중이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해 열연 가격이 10% 오르면 최종 제품 가격도 5% 이상 뛰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열연 반덤핑 관세 유지로 저가 수입재 의존도가 높았던 구조관 업체의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휴스틸과 넥스틸 등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늘자 올해 구조관 가격을 세 차례 인상하고, 배관재는 11월 출하분부터 할인율을 4~7% 축소했다. 그럼에도 휴스틸은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19.6% 감소하며 영업적자로 돌아섰고, 넥스틸도 3분기 매출 1219억 원(-22.3%), 영업이익 55억 원(-58.7%)에

그쳤다. 세아제강 역시 3분기 매출 3018억 원(-17.9%), 영업이익 54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강관사들은 해외 현지 생산과 고부가 시장 중심으로 공급기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아제강지주는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해상풍력·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수소 등 저탄소 인프라용 강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중동 등 전통 에너지 시장 대응을 위해 SSUSA 제조법인을 중심으로 유정용(OCTG) 강관 생산·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SSA·SSUSA·이녹스텍·SSUAE 등 해외 법인의 글로벌 프로젝트 대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일본 ‘무력행사’ 언급에, 중국 반발

>> 1면 ‘엔저·日中갈등…’서 계속

◆일·중 긴장감… 지정학적 리스크 부상

빠르게 고조하는 일·중 간의 긴장감도 국내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양 국가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정치적으로 얽혀있어, 양국간의 긴장감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개입할 경우(중국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군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라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날인 8일 쉼젠 주오사가 중국 총

영사는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더러운 목을 주저함 없이 베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격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중국 정부는 쉼젠 총영사의 발언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앞선 발언에는 항의의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11일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는 18일 다카이치 발언 철회와 함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엔화 약세’ 영향 당분간 지속

전문가들은 일본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당분간 엔화 약세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승진 기자 asj1231@